

박물관사람들

2013년 여름 4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ISSN 1599-7863



2013년 여름 42호

기획 | 소반

- 04 소반
- 08 균형의 아름다움 - 왕실에서 사용한 소반 이야기
- 11 소반과 인생

문화칼럼

- 14 표암, 영통동을 가다

회원마당

- 18 비로자나불의 미소
- 21 뜻밖의 선물
- 24 낮설게 감상하기

학술상

- 27 1784년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숨은전시

- 32 해와 달이 머무는 곳

박물관회 소식

- 33 WFFM소식
- 34 박물관회 후원하기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주칠쌍룡문호족반,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책을 만들면서

정겨운 마을이 있었어요. 예쁜이들을 보았어요. “애정리 영희” · · · (水)
 멋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 · · (眞)
 무심코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만들기. · · · (鉉)
 새로움이 두려운 지금, 두려움은 잠시 접고 누군가의 눈길에 머물기를.....희망한다. · · · (愛)

아픈 이별로 시작된 계절이 혼돈으로 끝나 갑니다. · · · (文)
 낮설은 것이 많았던 올 봄은 이렇게 다 지나갔군요. · · · (傭)
 세련되고 상상하게, 가야할 길. · · · (津)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헌자 · 계운애 · 길문숙 · 서유미 · 정은숙 진행 윤혜진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반



한국의 살림집에 온돌이 도입됨에 따라 난방을 위해 부엌 바닥면의 위치가 지표보다 낮고, 부엌에 딸린 식사 전용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리된 음식을 소반 위에 올려서 방으로 옮겨 식사하였다. 따라서 소반은 음식을 나르는 쟁반과 식탁의 역할을 겸한 독특한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여성들이 음식상을 차리고, 지표보다 낮은 부엌에서 마당과 대청을 통해 음식을 운반해야 했는데, 식기들은 磁器나 鑪器로 만들어져 무거웠다. 때문에 가능한 소반의 무게를 줄이고 혼자서 들고 나르기에 알맞은 크기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소반의 상판인 천판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하여 들고 나르기에 편안하게 하고, 또 얇은 판재 사용으로 무게를 줄였으며, 다리와 운각은 무거운 상체를 받칠 수 있도록 견고한 짜임 형식을 취했다. 사용하기 편리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견실한 구조의 짜임은 소반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또 한국 목가구의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儒學의 영향으로 남녀유별·장유유서 등의 제한된 규범에 의해 겸상 없이 독상을 차리게 되어, 상차림 횟수가 많아지고 집안 행사시 용도와 인원수에 따른 소반의 숫자가 필요했으므로 大家에서는 부엌 선반, 처마 밑 시렁, 광, 찬방 등에 상당한 양의 소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반은 지방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해주반·충주반·나주반·통영반·강원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에 따라 사각반·호족반·구족반·원반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관청이나 야외에서 식사할 때 머리에 이고 나르는 公放床, 여럿이 둘러앉아 먹거나 돌상을 차리는 두리반, 그 밖에 회전반, 결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글 박영규 · 용인대 교수

이러한 소반들은 각기 天板, 雲却, 목재질, 제작기법에 따라 기능적이고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다.

목재로는 은행나무·가래나무·호두나무·피나무·소나무 등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넓은 판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벼우며, 얇아도 쉽게 터지거나 비틀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중 은행나무는 재질이 부드럽고 매우 가벼우며 나무의 특수성분으로 인해 썩이 쏠지 않으며 약간의 탄력도 있어 흠이 적게 생기므로 가장 널리 애용되었다. 은행나무에 옷칠된 소반은 예로부터 인정받는 일급품이었다.

1. 형태적 분류

1) 사각반

사각반은 보편적인 식사용으로 각 지방 특성에 따라 특유한 고유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해주반은 황해도 해주 지방산으로 천판의 네 귀가 菱形으로 굴러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로 구성된 일반적인 소반과는 달리 卍字·囀字·꽃·나비 등이 투각된 두 개의 넓은 板脚이 힘을 받도록 약간 외반되어 있다. 그 사이에 양옆 두 판각의 힘을 보완하고 견고하게 천판을 받쳐주는 雲脚이 있다.

충주반은 해주반과 같이 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卍字나 꽃 등의 투각이 없이 능형 구멍만 뚫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천판은 나주반과 같이 모서리가 각이 진 형식이나 통판을 파낸 것이 특징이며 양다리를 고정시켜 주는 운각도 단순하다.

나주반은 천판의 네 귀가 각으로 접혀 있고 그 아래 굽은 기둥이 운각에 끼워져 있으며, 천판 아랫면에 견고하게 끼워진 운각에 곧고 굽은 다리를 끼워 상판을 받치고 있다. 기둥 사이에는 나주반 특유의 가락지가 견고하게 물려 있는데, 이는 무거운 그릇을 올려놓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벼워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조와 짜임에서 효율성을 높인 한국 소반의 기본 형식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보편화되고 많이 쓰였다.

통영반은 천판과 변죽을 한 개의 통판으로 구성하고 네 귀가 굴러져 있으며, 천판의 하단에 끼워져 있는 굽은 기둥을 두 단의 中帶가 견고하게 거머잡고 있다.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전통형식의 소반이나 교자상들은 통영반 형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



01 해주반
02 충주반
03 나주반
04 통영반
05 강원반



06

강원반은 해주반과 형태가 비슷하나 천판 두께가 두껍고 변죽의 깊이가 아주 낮아 투박하게 보이며, 판각의 단순한 사각 또는 원형 투각과 천판과 판각의 거친 대팻자국은 인위적인 면보다는 소박한 멋을 풍긴다. 강원도 목가구의 특성인 건강함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소나무와 피나무로 짜여 있다.

2) 호족반

소반의 다리가 호랑이 다리같이 날렵하게 생겼다 하여 호족반이라 부르며, 여러 소반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형태이다. 전역에 걸쳐 사용된 일반적인 호족반은 천판 둘레의 변죽이 낮고 다리가 굵고 튼튼해 보이며, 가늘고 긴 다리는 경쾌하고 당당하며 조형미가 돋보인다.



07

3) 구족반

소반의 다리가 개[犬]다리와 같다 하여 개다리소반 또는 구족반이라 부른다. 이런 형식의 소반이 충주지방 일원에서 주로 생산된다 하여 충주반이라고도 한다. 각이 진 힘찬 다리는 실제 개의 다리 모양은 아니며 조선시대의 교자상이나 장과 농의 다리부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이 나타난다. 다리가 굵고 길어 힘차고, 발목이 가늘고 쪽 뺨어 있어 경쾌하면서도 날렵함을 보이고 있다. 구족반의 천판은 8각, 12각이 대부분이며 천판 둘레에 변죽을 따로 대지 않고 천판과 함께 통판으로 깎은 것이 상례이다.



08

4) 원반

원반은 轆轤 또는 갈이틀이라 부르는 목물레에 목재의 축을 고정시킨 후 연속적으로 회전시키면서 날카로운 칼로 외부와 내부를 깎아내는 기법으로 제작한다.

회전속도가 느리고 일정하지 않은 속도 변화로 인한 칼자국으로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정교하고 매끄러운 면보다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소박함이 보여 정감이 가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주로 피나무·소나무가 사용되었으며 주로 강원도 일대에서 제작되었다.

06 호족반
07 구족반
08 원반

2. 기능적 분류

1) 일주반

기둥이 하나로 되어 일주반 또는 單脚盤이라 부른다. 이러한 소반은 기둥이 하나이므로 시각적으로나 실제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과일이나 약, 냉수 등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은 그릇 하나를 올려놓기 위한 용도로 짐작된다. 雲唐草形의 네 발 위에 네 줄을 꼬아 올린 기둥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하단과 같은 운당초형 받침이 12각의 盤을 받치고 있다. 은행나무에 두껍게 옷칠을 하여 만들었는데 천판의 넓이에 비해 기둥이 성큼 높아 경쾌하게 느껴진다.



09

2) 회전반

일반적인 소반에 비해 많은 음식을 올려놓는 대형소반으로 먼 곳의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상판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소반이다. 운각으로 조각된 굵은 네 개의 다리가 견고하게 받치고 있으며, 중심 부위에 회전축을 설치하여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0

3) 두리반

두리반은 여럿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거나 돌상으로 활용하여 떡·활·엽전·책 등 여러 가지 품목을 올려 차리기도 한다. 두리반은 기둥 없이 판재로 짜여진 판각을 盤面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반면의 뒤쪽에 판재를 덧대어 판각과 반턱짜임이 되게 한다. 상판을 받치는 판각에 경사 각도를 주어 많은 양의 음식을 올려놓아도 그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보인다.



11

4) 공고상

공고상은 야외나 관청으로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를 때 사용하는 소반으로 番床이라고도 한다. 음식을 먹고 또 나르기 위한 적당한 人體工學의인 높이에 맞도록 하단이 길게 설계되었다. 이곳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즉 開窓을 뚫고 양 측면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었다. 🌐

09 일주반
10 회전반
11 공고상

균형의 아름다움

- 왕실에서 사용한 소반 이야기

글 강현자 · 회원

조선시대 좌식 생활의 중심에 있던 소반은 입식 생활을 하는 현대에 이르러 점차 잊혀 가는 부엌가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반은 강인한 천판과 화려한 운각과 견고한 여러 동물의 다리 모양을 하고 서서 일생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왔다. 선조들은 소반에 닝쿨무늬, 국화문, 만자문 등등의 문양과, 개다리, 호족, 마족 등의 다리 장식으로 길상을 상징하여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였다. 나무와 꽃과 동물을 생활 속으로 불러들여 부귀와 만복을 염원하였다.

자연과 동화된 삶을 즐기며 다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소반 속에서 찾아본다. 변해가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멋을 찾아보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 하여, 선조들의 생활방식이 담긴 소반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풍기는 멋과 아름다움을 왕실의 생활상을 통해 들여다본다.

몇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강녕전에서 왕과 왕비가 수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시대의 궁중용 기물을 도해한 《進饌儀軌》에 의하면, 수라상에는 원반, 결반, 책상반을 사용하였다. 왕과 왕비는 원반 앞에 앉아 수라를 들고, 결반에는 기미상궁이 앉아 기미를 보고, 책상반에는 전골상궁이 전골 시중을 들며 수라상궁이 음식 시중을 든다. 왕과 왕비가 앉은 앞쪽에 있는 원반은 소반 전체 표면에 붉은 칠을 한 쌍룡무늬호족반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3전시 '왕실의 생활실'에 전시되어 있다.

이 주칠호족반은 나주지역에서 만들었다. 천판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 천판의 테두리인 변죽을 따로 제작하여 천판에 부착하는 제작 공법을 사용하였다. 천판이 뒤틀리거나 쪼개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이요 역사다. 그것이 소반의 견고한 믿음이다. 단단한 구조의 짜임이 주는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뼈격거림을 안정시켜 주기라도 하듯 편안하다.



01 주칠쌍룡무늬호족반-나주반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변죽은 천판과의 경계선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부드럽다. '변죽을 올린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돌려서 알아차리게 한다.'는 뜻으로, '변죽을 쳐서 상판을 올린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왕비는 왕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데, 왕은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판에 한 줄 원을 음각하여 조화로움을 더한다. 동근 천판에는 중앙의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승천하는 용과 하강하는 용의 용맹한 기상을 금색으로 시문하였다. 입을 벌리고 날고 있는 두 마리 용 사이사이에 떠 있는 푸른 구름은 용의 위용을 한껏 부풀린다.

음각한 원 밖으로 천판의 한쪽에는 황금색 오얏꽃 한 송이가 시문되어 있다. 『高宗實錄』 「勳章條例」에 보면, 1900년에 오얏꽃 문양을 대한제국의 훈장 문양으로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소반은 대부분이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이 호족반이 대한제국의 황실에서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천판에 시문한 문양의 의미를 짚어보면, 하늘과 땅의 조화, 즉, 하늘에는 용과 구름, 땅에는 오얏꽃, 그것들을 아우르는 음각의 원으로 우주만물의 영원성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왕실과 나아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이 영원하길 바라는 염원의 상징은 아니었을까.

천판 밑으로는 잘 휘어지면서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를 닝쿨무늬로 투각한 운각이 천판 아래를 휘둘러 싸고 있다. 소반이 여유와 편안함을 주는 것은 이처럼 드러내지 않고 소반의 중심을 받치고 있는 이 운각의 힘 때문이다.

이 소반은 호족반인데, 발 부분이 호랑이 발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족 다리의 섬세한 닝쿨무늬 풍혈 장식은 왕실의 격조를 느끼게 한다. 운각의 좌우 닝쿨무늬 사이에는 '萬歲', '聖壽' 라는 글자문양을 투각하여 길상과 장생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 소반은 표면 전체에 붉은 색의 주칠을 하였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붉은 빛깔의 주칠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전통의 옷칠 때문이다. 영롱하고도 강렬한 색상이 주는 소반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왕의 먼 앞쪽, 원반과 결반 사이의 뒤쪽에 있는 흑칠을 한 작은 책상반은 투각당초문해주반으로 불린다.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 2전시 '한국인의 일상'실에서 이 책상반을 만날 수 있다.

책상반은 직사각형으로 생긴 소반이 책상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에 편리하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천판의 좌우 양쪽 아래로 받쳐진 두 개의 넓은 판으로 된 다리가 소반의 중심을 잡고 있다. 안정된 비례가 단아하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두 개의 판각에 화려하게 투각되어 있는 국화무늬 장식이다. 국화무늬 판각의 화려함은 뿌리가 살아서 꽃을 피운 듯 향기가 느껴진다. 판각의 가운데에 투각된 국화꽃 무늬는 부귀를 상징하기도 한다. 운각에 투각된 힘 있고 입체적인 넝쿨무늬 장식은 길상문으로 왕가의 권위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는 상서로운 문양이다.

해주반은 통판을 파낸 것으로 변죽과 천판이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졌다. 천판의 힘을 방지하기 위해 변죽을 두껍게 제작한 장인의 애정과 소반의 가치가 함께 전해진다. 단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이 책상반은 견고하기는 하지만 투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화려한 문양의 투각 장식으로 보완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02 투각당초문해주반
18~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소반에는 편안한 휴식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균형이다. 변죽을 두른 천판과 천판을 떠받치고 있는 동물 모양의 다리와 화려한 문양의 운각이 소반의 중심을 아우르며 균형을 이룬다. 여기에 안정감을 주는 견고함과 소반의 궁극적인 편안함까지 더해 균형미의 절정을 이룬다. 이것은 또한 자연과 생활을 하나로 아울러 휴식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선조들의 삶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듯 소반은 부드러움과 강함, 편안함과 견고함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생활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반은 이러한 균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선조들의 혼이 깃들어 있기에 가치를 더해 주는지도 모른다.

소반은 보통 앉은 사람의 허리 높이를 넘지 않기 때문에 작고 아담해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또한, 작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를 좁혀 주기도 하여 삶의 친숙한 모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삶의 작은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운치의 크기도 가늠해 본다. 그래서 소반을 마주하고 앉으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옛 선조들의 명언이 떠오른다. 낮게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작은 모습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소반의 모습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읽는다. 서로의 거리를 가까이 해 주는 소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까지도 가까워지게 하는 소반의 멋, 태초에 선조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



01 <모당평생도> 중 '초도호연' 부분, 김홍도
1781년, 국립중앙박물관

옛사람들의 삶에서 소반만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구가 또 있었을까? 빈부귀천 막론하고 안 먹고 살 수 없으니, 부귀하면 좋은 소반을, 넉넉하지 못하면 수수한 소반을, 정말로 누추한 살림이라면 소반이라고까지 하긴 곤란해도 일단 밥을 얹어놓고 먹을 수 있는 형태의 그 무엇인가는 갖추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옛사람의 인생에서, 그 인생 중 일부를 그린 그림에서 소반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소반과 인생

글 서유미 · 회원

기와집 대청마루 가운데 앉은 어린아이에게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색동저고리에 전복을 입고 굴레를 쓰고 앉아 있는 아이 앞에는 타래실, 붓, 책, 활 등의 물건을 차려놓은 소반이 있다. 대원반(大圓盤) 또는 두리반이라고도 하며 천판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의 소반이다. 높이가 낮아서 아기가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아기는 이미 붓과 책을 잡았다. 젊은 부부와 할아버지는 아이의 입신양명을 점치며 기뻐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서 그림의 주인공인 홍이상은 장원급제를 하고 관찰사, 판서, 정승까지 지내게 되니 정말 앞뒤가 잘 맞는 평생도이다.



02 <평생도> 중 '페백', 작자미상
20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부귀 장수를 기원하는 모란괴석도 병풍이 화사하게 펼쳐진 대청 아래에 가솔들이 들뜬 표정으로 모여 있다. 대청 위에선 젊은 여인이 수모들의 도움을 받아 관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와 단아하게 차려입은 부인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시택에 처음 온 며느리가 페백을 올리는 중이다. 시부모 앞에는 각각 붉은 보자기가 펼쳐진 호족반이 하나씩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각각 다른 음식이 놓여 있다. 시아버지 쪽에는 밤과 대추, 시어머니 쪽에는 생강과 계피가루를 뿌려 길게 쪄개어 말린 포인 단수포(殿脩脯)를 놓았다. 공경과 노력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들이다. 한편 사랑채 쪽에서는 두 여인이 신부를 데리고 온 친정 어른인 上客을 대접하기 위해 각각 술상과 밥상을 나르고 있다.

이번엔 중인들의 연회이다. 무인년인 1758년에 태어난 22명의 동갑내기들이 같은 해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때가 순조 14년이라고 하니 이들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이 해에 만 56세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 22명이나 되는 동갑내기 사내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까지 함께 생존하다니 壽甲契라는 모임 이름에 정말로 어울리는 잔치라고 할만하다. 약사들과 기녀가 흥을 돋우고 있고, 마루 끝 쪽에 앉은 사람만 옷칠한 호족반을 받았고 다른 이들 앞엔 주칠을 한 낮은 소반이 놓여 있다. 그림에서 소반의 붉은색이 유독 선명해 보인다. 주칠 소반은 원래 왕실에서 주로 쓰는 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조선후기에 활동한 경제력 있는 중인들은 뭔가 다르긴 달랐나 보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생전 처음 의젓하게 앉아서 받아보는, 오직 나를 위해 차려진 상인 돌상을 받는다. 형편 되는 집안의 남자아이라면 일곱 살 즈음부터 독상을 받을 것이다. 때때로 소반은 음식을 먹는 역할 외에 책상이나 서안 역할을 한다. 그러다 나이가 되어 혼례를 치를 때면 합근례 술이 소반에 얹어 나온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소반에 음식을 차려줄 차례이다. 출사를 하여 관청에서 일하게 되면 집으로부터 공고상에 차린 점심을 받을 수도 있다. 관록이 늘어갈수록 契會나 주안상을 받을 모임에 갈 일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관청이나 궁중에서 개최하는 연회에 참석해 고임 음식에 꽃을 꽂아 차린 소반을 앞에 두고 앉게 될 수도 있는데, 관운까지 따라준다면 자신이 연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아차! 행여 악운이 덮쳐 금부도사가 가져온 소반 위에 놓인 사약을 마시고 이 세상을 등질 수도 있으니 매사에 은인자중해야 할 것이다.



03 <수갑계첩> 부분, 작자미상
1814년, 국립중앙박물관

여인의 일생과 함께하는 소반에 대해 살펴보자. 지체 높은 집안의 처자가 아니라면 소반 앞에 앉아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부엌과 방 사이로 들고 다니는 일이 더 많았을 것이다. 소반 자체가 무겁진 않았겠지만 늦그릇이나 사기 그릇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으리라. 식사할 때 독상은 어림도 없고 당연히 겸상을 했을 것이다. 혼기가 차서 혼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시택에 들어가는 날, 소반에 페백을 놓고 시부모님께 사배를 올린다. 그 이후로 소반은 그 여인과 더 가까워진다. 중가나 사랑채에 식객이 많은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면 시령 위에 올려있는 수없이 많은 소반 관리와 그 위에 차릴 음식에 대한 책임은 그녀의 몫이다. 빈한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다면 그 소반 위에 도대체 무엇을 차려야 할지 매일 고민하면서 살지도 모른다. 가족을 위해 소반에 정화수 떠 놓고 치성드릴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여인은 그제서야 자신을 위한 음식만이 놓인 소반 앞에 앉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천수를 다 하고 이승을 떠날 때 자손들은 저승길 수월하게 가시길 바라며 소반에 사갓밥을 차려 내 놓을 것이다.



04 <선묘조제재경수연도> 부분, 작자미상
1605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반과 여인들의 쉽지 않았을 생활을 생각하니 이 마지막 그림으로 보상을 하고 싶어졌다. 선조 38년 9월, 70세 이상의 노모를 모신 13명의 재신들이 개최한 경수연을 묘사한 '선묘조제재경수연도'에는 ㄷ자로 대부인들이 앉아있고 그 뒤에는 그 며느리들이 좌정하고 있으며 여인들 앞에 각각 놓인 주칠원족반에는 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여인들을 위한 잔치 그림은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기에 이 그림에 마음이 간다. 여담이지만 이 부인들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돌잔치에 등장한 홍이상의 모친도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나간 옛날 잔치이지만 부디 화창한 가을날 이 부인들이 소반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고 싶다. 🍁

표암, 영통동을 가다

글 정은숙 · 회원



01 <姜世晃肖像-姜世晃自筆本>, 강세황
1782년, 비단에 채색, 88.7×51.0cm, 국립중앙박물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다.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야인野人的 옷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마음은 산림山林에 있고 이름은 조정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가슴에는 이유二酉(대유산大酉山과 소유산小酉山을 말한다. 이 두 산의 동굴에 고서 천 권을 보관하였다는 고사가 있어서, 장서의 많음을 뜻한다.)를 간직하였고 필력은 오악五嶽(다섯 방향의 높은 산. 중국의 태산泰山, 화산華山, 형산衡山, 항산恒山, 송산嵩山을 가리킨다.)을 흔들 수 있다. 세상 사람이야 어찌 알겠는가, 나 혼자서 낙으로 삼는다. 늙은이의 나이는 칠십이며 호는 노죽露竹이다. 이 화상畫像은 자신이 그린 것이며 그 찬贊도 자신이 짓는다.

때는 현익섭제격玄默攝提格(고갑자古甲子에서 현익은 천간의 임토, 섭제격은 지지의 인寅에 해당한다. 임인년은 1782년이다.)이다.

머리에는 오사모를 쓰고 몸에는 평상복을 입은 채 단정히 앉아 그윽한 눈빛을 던지는 이, 강세황이다. '나이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 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는 공자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의 강한 개성과 자의식이 짐작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현재 전하는 강세황의 초상화는 모두 여덟 점이나 된다. 그 중 <강세황초상-강세황자필본>과 <강세황초상-이명기필본>이 보물 590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격의 주인공,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은 시·서·화 삼절로 칭송되는 문인화가로서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조선 남종문인화풍의 정착에 이바지 하였고, 진경산수·풍속화의 유행과 서양화풍의 유입에 깊이 관여하였다. 사군자에 일가를 이루어 묵죽에서는 당대 최고로 불렸으며, 별도로 다뤄지던 사군자를 한 벌로 묶어 그린 것도 그가 처음이다. 대나무 8폭을 판화로 제작한 점도 새롭다 하겠다.

또한, 뛰어난 감식안을 지닌 평론가로서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김홍도, 심사정, 강희언, 정선, 조영석, 김두량 등이 그가 그림에 화평을 남긴 이들이다.

그의 작품 중, 흔히 대표작으로 소개되는 것이 《송도기행첩》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유행한 산수유람 풍조에 따른 일종의 기행사경도로, 강세황이 45세(1757) 때에 당시 개경 유수였던 친구 오수채(吳遂采, 1692~1759)의 초청을 받아 개경 일대를 여행하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점의 그림과 시 2수, 강세황이 쓴 박은(朴闇, 1479~1504)의 시 한 수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 평하였듯이 독창적인 화풍으로 주목받아 온 작품이다.

특히, 《송도기행첩》의 7번째 폭인 <영통동구>는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며, 서양화풍과 관련하여 주목받아 왔다. 일관성 있는 선과 점들, 전체적인 짜임새, 바위 채색의 참신성 등으로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화면의 왼쪽에 적혀 있는 발문을 통해 그가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푸른 이끼에 덮여 있는 집채처럼 큰 돌'이 그것이다.



02 <靈通洞口>, 《松都紀行帖》, 강세황
1757년 추정, 종이에 먹과 채색,
32.8×53.4cm, 국립중앙박물관

영통동구에 놓여 있는 돌은 웅장하여 집채처럼 크다. 푸른 이끼가 덮여 있어서 얼핏 보면 눈을 놀라게 한다. 속설에 전하기를 못 밑에서 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꼭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웅장한 구경거리는 또한 보기 드문 것이다.

<영통동구>는 물기가 촉촉한 여름 분위기를 미점으로 표현한 산을 배경으로 핵심 주제인 여러 개의 큰 바위들로 화면을 꽉 채우고 그 외의 주변은 대담하게 생략한 구도를 사용했다. 화면은 거의 2/3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 자칫하면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대상을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다보며 표현한 반조감도적 시점을 사용하여 시선의 방향을 띄워 줌으로써 해결하였다. 또한, 원경과 근경의 관계가 소실점을 향해 그려져 있어 원근법의 차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의 초입에는 나귀를 타고 가는 이와 그 뒤를 따르는 시동이 작고 담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선을 이 인물에게 멈추었다가 다시 주변의 바위와 산으로 옮기게 되면 산과 바위는 처음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거대해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경물 간의 관계를 과장함으로써 자연의 웅장한 기세를 역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산은 몇 줄기의 가는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고 그 선을 따라 질고 열은 점을 찍어 음영효과에 의한 입체감을 나타냈다. 바위의 처리는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데, 그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어 있다. 일정한 굵기의 윤곽선으로 그린 다양한 크기의 바위들을, 윤곽선에 잇대어 아래쪽은 먹으로 어둡게 칠하고 위쪽은 옅은 녹색으로 맑게 칠해서, 음영과 바위가 이끼에 덮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과감하게 음영법을 도입한 데 비해, 바위는 입체감이나 괴체감은 느껴지지 않고, 편평하며 몇몇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미숙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조선은 16·17세기를 거치면서 그 정치·사회·경제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욕구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물성 강조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주의 미학의 대두를 가져왔고 회화에 있어서는 진경산수화, 서양화법의 수용으로 나타났다.

서양화법에 대한 지식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회화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부터였고, 1750년대를 넘기고 나서야 본격화된다. 유화에 기반을 둔 서양화의 명암법과 투시도법 등을 동양화적인 표현수단인 필묵으로 소화하는 데는 그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영통동구>의 참신하면서도 미숙한 듯한 느낌은, 이러한 시대적 선진 또는 한계를 반영한다 하겠다.

<영통동구>는 강세황이 개경 오관산의 영통동을 직접 유람한 후에 그린 것으로, 진경을 추구하면서 서양화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에 반영하였고, 그 속에 그가 증시했던 '俗氣 없고 文氣 있는' 격조가 구현되어 있다.

영통동은 영통사가 위치한 곳이다. 영통사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출가하여 머물렀던 곳이며 입적한 후에 대비하여 수습한 유골을 안착한 곳이기도 하다. '층층의 멧부리와 첩첩의 고개에 에워싸여서 하나의 호중세계를 이루어.....'라고 조선 전기의 문인 유희인(兪好仁, 1445~1494)이 묘사한 것처럼, 영통동은 산수가 맑고 조용하여 이곳을 유람하고 시문을 남긴 이들이 많다. 그런데, 강세황은 시도 산문도 아닌 그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영통동구>를 제작하였다. '이 산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이 이 산 속에 가 있는 것처럼', 훗날의 어느 편지글에 적었듯이.

이규보, <영통사에서 노니며>, 《동국이상국집》
산 같은 길 꾸불꾸불 산허리에 닿았는데
중 따라 가니 번거롭게 절을 물을 것이 없네
산에 이르자마자 맑은 시내 소리 들려오니
인간의 온갖 시비 일시에 부서지네



03 《興地圖》에서 송도, 작자미상
18세기 중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비로자나불의 미소



삼 년 전 어느 날, 조간신문에 실린 '법정 스님의 철불 사진'을 보게 되면서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철불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입가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턱선과 함께 도톰한 입술, 둥근 얼굴은 그지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스러움이 전해지는 은은한 미소를 가슴에 담고 불상의 실제 모습을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불교조각실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뵈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글 임미옥 · 회원

불교조각실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왕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만들었다는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불이라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 보원사지 철불 등 여러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철불의 느낌이 평소 많이 보던 석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철불은 철의 강한 성질처럼 차갑고 무뎠으며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던 비로자나불상은 같은 재질의 철불이지만,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이 설법한 진리가 온 누리에 가득히 비치는 것을 형상화한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에 등장하여 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진리의 재현자', '열반에 다다른 자'라는 뜻인 여래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철불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전쟁 물자로 당시 사찰에 있던 철불상들을 수탈해갔던 것이지요. 이 비로자나불상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생긴 모습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佛身만 남아 있는 이 불상은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智拳印을 하고 결가부좌하였으며, 균형 잡힌 신체 비율로 안정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이마와 도드라진 콧잔등, 움푹 파인 인중과 넓은 옷 주름 등에서 보여주듯이, 이 철불은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당시의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보면서 더욱 좋아하게 된 이 비로자나불은 높이가 112cm에 불과하지만, 좌대에 올려져 있어 살짝 올려다보면 눈높이가 적당히 맞습니다. 자그마한 몸체는 위압적이지 않아 친숙함이 느껴지고 금칠한 불상처럼 화려하게 번쩍이지 않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 가득한 미소가 편안하여 가까이 다가 마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주변에서 쉬이 마주치는 우리네 이웃 같은 평범한 얼굴이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 가득한 미소는 수줍은 듯 여리며, 은은하며 소박합니다. 아니, 어찌면 속은 새까맣게 탄 隱忍自重的 미소일지도 모릅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겠지만, 나에게 모든 걸 다 들어주고 풀어줄 것처럼 믿음직하게 보여 나만의 'Mr. 헨섬 철불'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꽃잎 같은 입술을 가진 국립중앙박물관의 꽃미남 철불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다른 곳을 관람하기 전에 우선 이곳으로 가서 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가까이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눈을 맞추며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는 동안 부처님은 그저 말없이 은은한 미소로 나를 내려다보기만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절터의 거친 풀숲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햇볕 따스했던, 혹은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던 산속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얼굴은 신라의 모습이고 몸은 고려 시대 모습이나 미소는 신라의 미소입니다. 이 철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평범한 불상이지만 나는 이 불상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철불에 비해 유명하지도 않고, 저만큼 멀리 홀로 떨어져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대부분은 이 부처님을 한 번 흘깃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다른 분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이 철불이 나는 좋습니다.

천 년쯤 전에 어느 장인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와서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나와 만나게 된 인연을 생각해 봅니다. 천 년의 긴 세월을 이어 오면서 이 철불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빌었을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나도 이 철불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때로는 하릴없는 작은 투정도 부러 봅니다. 그래도 이 부처님은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오래전 나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이 부처님을 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은은한 미소로 오래도록 이곳에 계신다면 언젠가 내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도 이 부처님을 보게 되고, 이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먼 조상인 나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이 부처님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로 그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겠지요.

박물관 특설강좌의 수업 중, “문화재는 한 번에 쉽게 보여주지 않으니 열 번, 스무 번을 보아야 보인다. 문화여행은 한곳에 집중하여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지켜워질 때에야 그 유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름다움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문화재를 보는 안목은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또 보아야 문화재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비로자나불의 미소를 보고 또 보며 비로자나불의 아름다운 미소를 알게 되었고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방에 걸렸던 사진 한 장을 인연으로 알게 된 이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덕분에 먼 옛날을 돌아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았고, 다시 먼 훗날의 또 다른 인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곳인 박물관에서 과거와 함께 미래도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



어느 날, 하정희 회원은 여고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껏 흥분된 목소리로 그 친구가 전한 소식은 뜻밖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직후 마산 여고 교지 《월영대》에 기고했던 〈독서법에 대하여〉와 〈병실〉이란 두 편의 글에 관한 내용이었다. 친구가 집수리를 하려고 오래된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여고 시절 이후 6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결혼을 하고 자식들 키우며 일상생활 속의 많은 사건들에 묻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일이었다. 친구가 전해 준 뜻밖의 선물은 기억을 더듬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뜻밖의 선물

글 계운애 · 회원

목요일, 박물관 연구강좌 중 한국사A 강좌를 마치고 나오는 하정희 회원을 만났다. 미리 그분이 쓴 〈독서법에 대하여〉를 읽고는, 60여 년 전의 열일곱 살 소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꽤나 궁금했다. 뜻밖이었다.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얼굴 가득히 환한 웃음으로 반기며 두 손을 잡아주셨다. 맞닿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감촉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다. 조심스럽게 회지 《박물관사람들》에 〈독서법에 대하여〉를 실고자 한다는 얘기를 꺼내자, “뭘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라면서 조심스럽게 서두를 꺼내셨다. 다 잊었을 것 같은 그 당시를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세세한 일까지도 기억하셨다.

여고 시절, 그분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문학 소녀였다. “그때는 단짝 친구와 함께 꿈 많은 문학 소녀였어.” 그러면서 살짝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어.” 라며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귀띔해주셨다. 이처럼 학업은 물론, 모든 일에 모범적이며 적극적이어서 모든 선생님들의 칭찬과 아낌을 듬뿍 받았다고 하셨다.

〈독서법에 대하여〉를 교지에 기고하게 된 동기는 당시 국어 과목 담당이었던 담임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참 좋은 분이셨지. 내가 눈에 안 보이면 친구들한테 ‘희야 어데 갔노?’ 하며, 늘 찾을 정도로 나를 예뻐하셨다.” 며 그 당시를 회상하는 그분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입은 여고 2학년의 모습이었다.

여기에 1954년, 교지 《월영대》에 실렸던 <독서법에 대하여>를 옮겨 본다.

내가 글을 쓰고 읽을 때부터 근 십여 년간 학교 교과서 할 것 없이 수 권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어느 누가 독서란 무엇이며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응당 독서란 읽는 것이요 그 방법은 자꾸만 읽으면 된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읽는다는 독서에 대하여 돌이켜 우리의 선배 또는 고인의 독서는 어떠한가 하며 어떠한 결과를 보았던가를 대강 말하여 우리의 독서법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고인의 독서는 한낱 읽기만 하였다던지 읽기 위해 읽었다던지 그것보다도 글을 읽어야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를 해야 벼슬에 오르고 벼슬을 얻어야 이른바 그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판이었으니 말하자면 옛 사람들은 스스로의 명예 곧 부귀영화를 최상의 목적으로 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무조건으로 굴종하여 공자를 읽고 논어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선 뜬 구름보다도 명량한 부귀공명을 꿈꾸던 것이 어느결에 그 읽던 책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으며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 정신은 책을 읽는 중에 부지부식간 빼앗겼으며 일거일동을 그 책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실린 글자는 절대지상의 명령으로만 알고 일점일획도 감히 손대지 못할 신성불가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조 오백 년간 정주학과 신도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조상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송’, ‘원’, ‘명’, ‘청’, 까지는 연대순으로 쪽쪽 외웠으며 ‘기자가 동으로 왔다.’는 말까지 꾸며대고 국치(國恥)를 영광으로 알았음인지 ‘한무제 토멸지하시고’라고 고성낭독 하였으며 ‘대명 태조 고황제 사개 국호왈 조선이라 하시다(大明太祖高皇帝 賜改國號曰朝鮮)’라고 무릎을 치면서 감투를 금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구한 역사 민족의 정신을 어느 틈에 잃어버리고 훌륭한 인물, 지명, 문학할 것 없이 참되고 훌륭한 것은 모두 중화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으며 무조건 송유를 흉내내며 중화를 존대하는 사대사상으로 흘렀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찌 독서의 그릇된 방법에서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인 중 서화담(경덕) 선생의 독서법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이 십팔 세 때 비로소 『대학(大學)』을 읽었는데 그 문학집주에 가로되 ‘궁지사물지리(窮至事物之理)……’라 함을 보고 드디어 책을 덮고 가로되 ‘사물의 이치를 연구함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백출하여 ‘바람은 왜 부느냐? 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느냐? 하늘은 왜 푸르느냐? 인생이란 무엇이며 선악이란 무엇이나?……’ 모든 것을 연구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를 시작하여 하늘하면 天, 계집하면 女 자를 붙여서 연구하며 해답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서경(書經)』을 배우다가 ‘기삼백육순유육일(稽三百六旬有六日)……’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떤 학자가 가로되 이는 ‘기삼백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아는 이가 썩 드물다. 나도 모르니 그대로 넘기지.’하고 책장을 넘기려 할 때 선생이 가로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오 모른다고 건너 뛰다면 글을 배우는 본의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감히 그 다음 장을 뒤적거리지 못하리라. 알던지 모르던지 구독이나 가르쳐 주시오.’하며 선생은 그 학자에게 독주를 배워가지고 책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몇 십 년을 읽은 결과 ‘기삼백’이란 일년이 삼백육십오일 사분도지일일(四分度之一日)되는 바로 역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생은 이것을 계독 연구하고선 십오일만에 역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을 잘못 읽는다면 자신에게뿐만 아닌 전 민족을 팔고 조국을 팔게 되는 것이요 잘 읽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독을 할 것인가. 마땅히 글을 글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있을 것입니다. 즉, 읽는 글이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요 내가 글의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책을 대함에 반드시 학구적 태도로 대할 것이요, 맹목적으로 사상을 알고 고인의 연구한 것을 토대로 완전치 못한 진리를 완성시키며, 또한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 쓰고 있다. 본문의 ‘읽는 글이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요, 내가 글의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독서를 하는 방법에 있어, 무작정 글대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잘 부합시켜 읽는 사람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독서 방법을 통찰하고 있었다. 여고생으로서 얼마나 깊이 있는 독서를 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25 전란을 겪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물자 또한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밤 열 시가 되면 전기 공급이 끊어져 전등을 켤 수가 없어 등잔불을 밝혀 책을 읽었어. 그 등잔불도 할아버지가 집에 불이라도 낼까 봐 못 켜게 해서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담요를 방문에 가려놓고 밤새 책을 읽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코밀이 그을음으로 새카맣지.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거야.”라며 그때를 회상하셨다.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을 정도로 독서에 열중했다고 하셨다. 등잔불도 맘껏 켤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책을 읽게 했던 어린 날의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할머니가 된 그 소녀는 지금 박물관 뜰을 이십오 년째 드나들고 있다. 1989년, 박물관 특설강좌 13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일 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개근상까지 받았지. 그때는 참 열심히 다녔네.”라며 박물관과의 첫 인연을 말씀해 주셨다. 정기 고적 답사는 물론, 해외 답사까지도 빠지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다녔다고 하셨다. ‘엄마’에서 ‘할머니’가 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그 같은 열정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한결같은 그분의 열정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탄과 존경스러움이 우러났다.

손녀 ‘정하’는 할머니가 쓰신 두 편의 글을, “꽃을 사랑하시고,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자비심을 안은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라는 헌사와 함께 작고 예쁜 책자로 만들어 할머니께 선물했다고 한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희망적 앞날을 꿈꾸게 하는 그분의 계속되는 열정이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빈다. 🌸

낮설게 감상하기

김홍도 · 정선 · 유암도



01 유암도, 홍세섭
19세기, 비단에 수묵,
119.7×47.8cm,
국립중앙박물관

가벼운 발걸음으로 꽃들의 미소를 따라 낮은 계단을 오르며 목요일을 시작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박물관 전시실을 돌아보고 강의실로 향하던 2012년, 어느새 세 번의 계절이 지나고 종강이 다가온다.

박물관의 전시물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보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회화실과 과학문화재를 즐겨 찾는다. 회화실의 그림을 마주할 때는 언제나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다.

그림을 보고 느끼는 마음은 각자 다르겠지만, 내게는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사진이라는 나의 취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볼 때는 화가 자신이 되어 그 시대를 바라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밝고 고요한 빛 속에서 화가의 마음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고 혹은 꿈을 꾸기도 한다.

사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여백의 미는 부족한 듯하면서도 멋을 풍기는 숨씨를 보여주어서 보는 이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준다.

또한 그림에는 시대와 시대의 분위기가 있다.

고려 회화의 전통을 발판으로 중국의 다양한 화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조선 특유의 미의식을 발휘한 조선 태동기의 회화, 화가가 여러 화풍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화풍을 형성한 중기 회화, 조선 고유의 산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많이 그려진 후기 회화를 통해 화가들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양식을 볼 수 있다.

특히 좋아하는 그림은 겸재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로, 같은 사물도 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림이다.

화가 나이 76세. 힘이 넘치고 생동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바위를 그냥 큰 돌로만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담은 그림이다. 그림을 먼저 접하고 대상을 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으나, 비가 흠뻑 내린 뒤 올려다보면 이 그림을 그린 노화가의 마음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02 인왕제색도, 정선
1751년, 종이에 먹, 79.2x138cm, 삼성미술관 Leeum

다음은 석창 홍세섭(1832~1884)의 <유압도>이다. 작품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구도에서는 혁신성이 보인다.

이전의 그림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구도로, 헤엄치는 오리 두 마리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며 그린 이 그림을 보노라면 금방이라도 내 발 밑에서 물결이 일렁이며 오리가 다가올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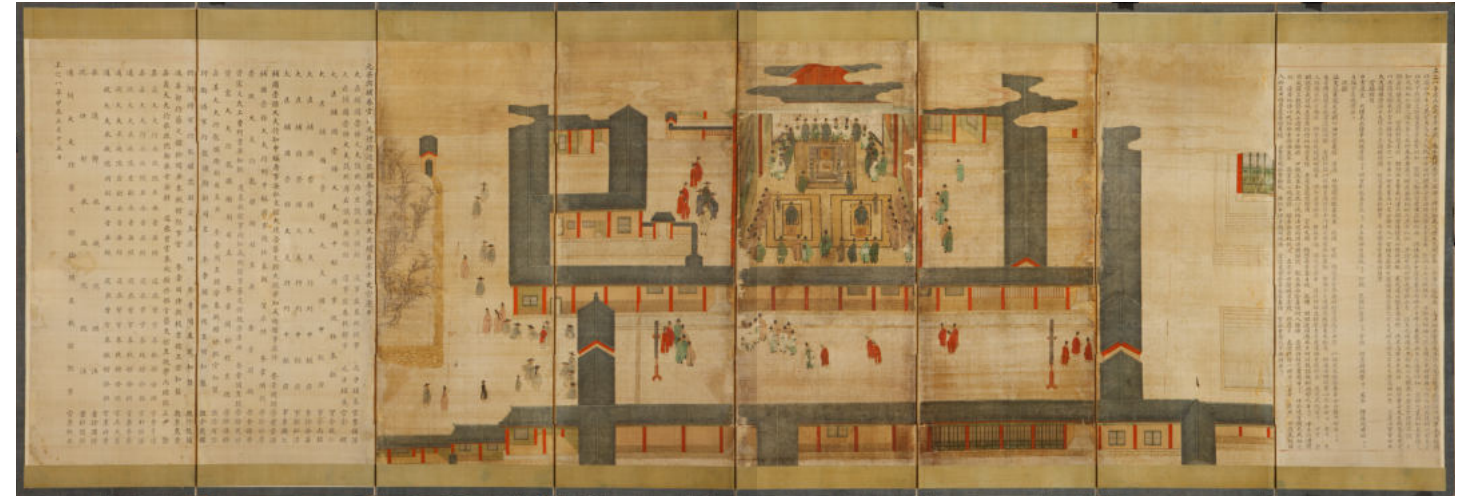
사물을 바라볼 때 눈높이로 보는 것은 보통의 시각과 구도가 되며, 대개는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로 앵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하이 앵글을 시도해봤다면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다. 잠시 익숙함에서 벗어나 비 오는 날 땅 위 5~10cm를 본 다든지, 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항상 대하는 사물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이 앵글은 내가 사진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시도해 보는 방법이다. 가끔은 피사체를 여러 구도로 실험해 보면서 대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대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하이 앵글과 로 앵글의 모미는 눈높이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신윤복(1758~?)의 <월하정인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금도 남녀의 만남이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조선 시대 남녀의 만남은 은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깊은 달밤,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진다. “月沈沈夜三更兩人心事兩人知”라는 화제를 보지 않아도, 조용한 한밤중의 밀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삶의 멋을 맛보며,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력의 지평을 열어 주는 이곳 박물관에서 나는 오늘도 나만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



01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비단에 채색, 8폭 각 105.0x44.0cm

I. 머리말

1784년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글 민길홍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1784년 <문효세자文孝世子 보양청계병輔養廳契屏>은 1782년 정조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문효세자文孝世子(1782~1786)가 1784년 1월, 보양관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참여한 관원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궁중행사도다. 궁중 행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서문序文과 행사 장면을 그린 행사도行事圖, 행사에 참여했던 관원들의 좌목座目이 남아 있어 매우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병풍의 이름을 병풍 서문에 쓰여 있는 것을 따라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으로 명명하였다.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보양청에서 실시한 상견례 의식을 기록한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궁중행사도이며, 그 주인공이 정조의 첫 번째 아들 문효세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와 보양관 상견례 행사의 제반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고, 이 병풍의 여러 가지 특징과 독특한 화풍을 주목하면서 그 회화사적 가치를 짚어보았다.

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9집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에서 상세도판과 함께 안료 분석 및 배채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II. 輔養廳契屏의 제작 배경

왕실에서는 원자와 원손이 태어나면 보양관輔養官을 두고, 3세가 되기 전에 보호와 양육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하였다. 보양청에서는 원자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또는 서책의 공급과 관리 등을 관장했다. 보양관은 원자의 첫 스승으로, 원자의 보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종래에는 없었던 것인데, 1518년(중종13) 중종中宗이 당시 세자世子였던 인종仁宗(1515~1545)의 보양을 위하여 처음으로 설치設職하였다.² 그 후 원자의 나이가 4세 정도가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講學廳으로 바뀌고, 『소학小學』, 『맹자孟子』 등을 배우는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양청은 왕실의 계통을 이어갈 원자의 첫 번째 보육기관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다. 보양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교육과 행사 의례는 『보양청일기輔養廳日記』라는 기록을 통해 남아 있다. 『문효세자 보양청일기』는 1783년 11월 18일부터 1785년 4월 3일까지 보양청에서 있었던 일들이 매일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보양관 두 명과 문효세자가 상견례를 했던 것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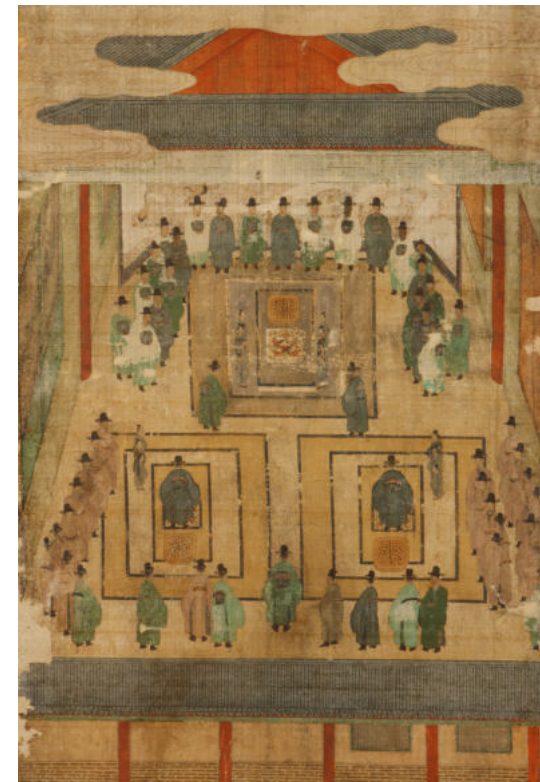
문효세자는 의빈 성씨가 낳은 아들로, 정조의 첫 번째 원자였다. 그는 두 살이 되던 1783년(정조7년) 11월 원자로 결정되었는데,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어린 나이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우의정 이복원李福源(1719~1792)과 영돈녕부사 김익金燧(1723~1790) 2명이 보양관으로 정해졌다. 일반적으로 원자보양관은 3명이고, 원손보양관은 2명이었고 문효세자는 정조의 아들, 즉 원자였기 때문에 3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정조 본인이 원손이었을 때 보양관을 2명 임명한 1754년(갑술년) 전례를 따라 2명으로 정하였다.³ 이듬해인 1784년 1월 15일, 창덕궁 대은원戴恩院에서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날의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원자元子와 보양관이 상견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대은원에 나아갔다. 원자가 동쪽에 서고 보양관 이복원李福源·김익金燧이 서쪽에 서서 보양관이 배례拜禮하고 원자가 답하여 배례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승지承旨·사관史官이 입참入參하였다. 예가 끝나고서 선찬宣饗하고 보양관의 자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베퍼시키라고 명하였다.⁴

² 肅宗代에 景宗을 위해 보양청을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다. 원자와 원손의 스승을 보양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 이전 中宗代에도 있었으나, 그때에는 三政丞이 보양관을 兼任하므로 별도의 관청이 필요치 않았다. 육수화, 『조선왕실의 조기교육기관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9권 1호(2007. 4), 59~92쪽.

³ 『正祖實錄』 1783년 11월 18일

⁴ 元子與輔養官, 行相見禮. 上御戴恩院. 元子東向立, 輔養官李福源, 金燧西向立, 輔養官拜, 元子答拜, 命時原任大臣'閣臣'承'史'入參. 禮畢宣饗, 命官輔養官子弟中一人. 『正祖實錄』 1784년(정조8년).



02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부분

<보양청계병>은 이 행사를 주관한 보양청 관리들이 만든 것으로, 총 10폭이며, 서문 1폭, 행사에 참여한 25명 인물의 좌목 2폭, 행사도 5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양관 이복원의 문집인 『쌍계유고』 「보양청계병서」는 <보양청계병> 제1폭의 서문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이 서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효세자의 보양관 상견례 행사는 국가적인 경사였고 따라서 이 행사를 주관한 보양청 관리들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서문을 써서 대대로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다. 원자가 태어나고, 보양관이 지정되고, 상견례 행사를 한 것은 이제 바야흐로 원자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었기에,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생생하게 영원히 남기기 위해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을 그렸던 것이다. 또한 병풍은 총 8벌 만들었으며, 1벌은 보양청에 남겨두고 7벌은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해, 공적인 목적으로 보양청에 보관하고자 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기념물로 나누어 가지하고자 했던 제작 목적도 확인할 수 있겠다.

III. 輔養廳契屏의 내용과 회화사적 특징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각 세로 105cm, 가로 44cm의 화면 총8폭으로 구성되었다. 제1폭에는 이복원이 쓴 서문序文과 7명의 관리들이 쓴 칠언사운 七言四韻 연구聯句와 각각의 차운시次韻詩가 적혀 있다. 제7폭, 제8폭에는 행사에 참여한 25명의 좌목座目을 적었다. 제2폭부터 제6폭에 걸쳐 나머지에 행사 장면을 담았다.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제4폭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 전각의 구조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문효세자와 보양관 2명의 상견례 행사가 치러진 곳은 창덕궁昌德宮의 대표적인 편전인 선정전善政殿 동남쪽 부속 건물, 대은원戴恩院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궁중 행사는 창덕궁 인정전仁政殿과 같이 궁궐의 중요한 전각에서 실시되었다. 보통 전각의 실내와 그 앞뜰까지 넓게 자리를 설치하여 넉넉한 공간에서 거행되었다. 남향의 전각을 병풍 위쪽에 배치하고, 병풍의 아래에는 그 전각으로 출입하는 문이 그려졌다. 그런데 이 병풍은 그런 일반적인 궁중행사도와 다르다. 대은원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동궐도>를 통해 옛 모습을 알 수 있다. 대은원은 창덕궁의 주요건물이 아니었고 계다가 북향을 하고 있는 작은 건물이다. 일반적인 궁중행사는 전각의 앞 계단에서 뜰에 이르기까지 덧마루[補階]를 설치하고 백목장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그 위에는 대형 차일을 친다.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는 실내에서 치러진 작은 규모의 행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조물이 생략되었다.



03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는 일직선으로 그려졌으나, 행사가 진행되는 제4쪽에서는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원근법을 적용하여 조망하고 있다. 병풍에서 실내를 조망한 시점은 건물의 옆면, 즉 서쪽에서 들여다본 것이다. 그래서 건물의 지붕 모양이 다른 궁중행사도에서와 달리 건물 옆에서 본 모습이다. 원자의 방석은 동쪽에 배치되고 서향하도록 되어 있다. 서 있을 때의 자리와 배례할 때의 방석 총 2개가 있다. 그 뒤로는 신하들이 빙 둘러서 있고, 십장생도 유형의 병풍이 둘러져 있다. 보양관들의 자리는 원자 맞은편 서쪽 벽에 놓여지고 원자를 향해 동향하여 있다. 앞쪽 방석으로 가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배례를 한 것 같다. 원자는 왕을 그리지 않는 궁중회화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생략되었다.

두 번째로 인물의 표현이 주목된다. 궁중행사도의 인물은

의궤 도설과 마찬가지로 도식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일률적인 모습으로 반복하여 그려진다. 1785년에 친정親政 행사를 마치고 그려진 <친정계병>과 비교해 보면,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인물은 개성이 강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색, 녹색, 연녹색으로 표현된 관복과 서대犀帶, 삼은대銀帶 등으로 구별하여 묘사된 관대는 매우 인상적이다.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얼굴과 자세가 제각각이다. 수염이 좀 더 많은 사람과 그에 비해 덜한 사람, 서 있는 각도도 미세하지만 조금씩 다르다. 줄을 달리 해서 서 있는 인물은 관직 서열대로 서 있는 것임을 관대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일반 궁중행사도에 비해 큼직하게 인물을 그리고, 복식이나 표정, 동작 등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특히 건물 바깥쪽에 그려진 선비들이 갓 아래에 털모자를 덧쓰고 있는 차림새를 통해 행사가 거행된 때가 겨울 1월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표현이다.⁵³ 이렇듯 행사가 치러지는 바깥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풍속화적 요소가 보이는 것은 19세기 이후에는 사라지는 18세기 궁중행사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병풍에는 전면적인 배채背彩 기법技法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채前彩와 배채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채색효과를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하늘색과 담홍색으로 그려진 옷은 뒤에서 흰색으로 배채하여 하늘색이 좀 더 밝고 은은하게 발색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을 배채하고 앞에서는 이목구비와 관복의 세부표현을 전채한 것은, 초상화의 기법과도 상통하고 있어 흥미롭다. 행사가 벌어지는 대은원 건물의 내부바닥도 건물 바깥의 땅과 구별하기 위해 뒤에서 흰색을 칠하여 밝게 보이도록 하였다. 배채는 불화나 초상화, 궁중기록화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채색기법인데, 이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에서 다양한 배채기법 사용의 향후 다각적인 연구에 초석을 제공해 준다.



04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부분

IV. 맺음말

1784년(정조 8년). 정조는 태어난 지 채 두 돌이 안 된 문효세자를 원자로 삼고 보양관을 정한 후 상견례 의식을 거행하였다. 보양청에서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관료들은 이 행사를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병풍을 제작하였다. 행사도의 존재는 그 행사가 대대로 기념할 만큼 특별하게 중요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18세기 후반 궁중행사도는 문효세자가 원자로 있었던 1783년, 84년, 85년에 유독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조에게 문효세자가 각별했던 만큼 그를 통해 왕통을 계승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문효세자였지만, 탄생에서부터 보양관 상견례, 책례冊禮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원자로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거치게 되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행사를 그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궁중행사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구도나 인물의 표현기법 등에서 다른 궁중행사도와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인물의 비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인물의 동작과 개성의 반영, 계절에 따른 실제 인물 복식의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이 병풍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원문은 《美術資料》 80호(2011)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심사평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에 <자료>로 분류되어 실렸지만 규모가 큰 하나의 작품에 대해 제작배경, 내용 분석, 양식적 특징, 그리고 회화사적 의의까지 도출해냄으로써 연구논문에 상응하는 체제와 내용, 접근방식을 갖춘 글이다. 이 논문은 처음 공개된 작품을 연구한 것으로서 보양청의 계병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작품을 다루었고, 정조대 궁중행사도의 회화사적 의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조대 알려진 궁중행사도가 많지 않아 정조대 궁중행사도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하게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논문이라 생각한다.



마차바퀴

해와 달이 머무는 곳, '초원의 대제국, 흉노: 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글 정은숙 · 회원

유난히도 변덕스럽고 쌀쌀한 날씨에, “봄이 왔어도 봄 같지가 않구나”, 를 연발하는 나날이었다. “春來不似春”, 이 유명한 말은 당나라 사람 東方朔의 《昭君怨》이란 시의 한 구절이다. 시 속 비극의 주인공, 왕소군은 한의 원제(기원전 48년~33년 재위) 때에 흉노와의 화친을 위하여 선우 호한야에게 보내진 여인이었다. 이 봄날,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에서는 '초원의 대제국, 흉노: 몽골 발굴조사 성과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고 있다.

기원전 202년 겨울, 한 고조는 32만 명의 병력으로 흉노 원정에 나섰다. 도리어 평성(산시성 다동시 동북쪽)에서 포위당하여 보급이 끊기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이때, 선우 목득의 부인에게 선물을 주어 포위망의 일부를 풀어주게 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후 화친을 위하여 “한 황실의 여인을 선우의 연지(부인)로 바친다.”, 는 약속을 하였고, 왕소군은 이렇게 이역 땅으로 보내진 여인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천지가 생겨난 곳,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의 흉노 대선우가 삼가 한 황제에게 묻노니, 안녕하신가?” 선우 노상계 죽(기원전 174년~160년 재위)이 한에 보낸 묵서에서는 그 당당한 위엄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흉노가 중국을 압박하고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구사한 기마전법과 고도의 금속 무기 사용으로 뒷받침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7년 이후로 한-몽골 공동 학술조사를 진행한 성과 중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조사한 도르릭 나르스 T1호 무덤과 주변 배장묘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흉노의 기마전법 구사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화살촉과 다양한 종류의 말갈춤이 있다. 부장되었던 말의 뼈가 전시되고 있는데 한 무제를 시샘하게 한 천리마는 아닌 듯 아담한 크기이다. 금으로 장식한 목관, 대형 옥벽, 마차 바퀴 등의 유물도 전시되고 있다.



2013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서울 이사회 및 총회

2013년 4월 22일 ~ 25일

2013년 4월 22일부터 25일 4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세계박물관회의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2013 WFFM 서울 이사회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22일 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아시아지역회의, 총회를 하였으며, 삼성미술관 리움, 화정박물관, 호림아트센터, 한국가구박물관 등에서 전시관람과 오찬, 만찬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시내 근교의 주요 박물관 및 유적지를 방문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이어져 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재와 박물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MOU협약식에서는 한국박물관회연맹(KFFM)과 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ICOM 한국위원회)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내 문화유산 보존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양자 간의 상호교류를 약속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깊다. 체결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배기동 ICOM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해외 각국 박물관 인사 등 문화재 및 박물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번 서울 행사를 발판 삼아 한국박물관회연맹과 세계박물관회연맹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외 박물관 및 후원자 참여를 돕고, 박물관 후원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전세계 30여개국 후원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비영리 비정부단체로, 1975년 발족 후 박물관 후원회의의 아이디어 교환, 문화유산 보존, 각 나라 박물관 후원자 증대를 위해 활동한다.

한국박물관회연맹(KFFM, 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한국의 박물관 후원 단체가 모여 박물관의 발전 및 후원인, 후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 박물관 후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박물관 후원하기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www.fnmk.org로 접속
화면상단 후원하기 클릭



문화의 힘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 뒤에는 문화예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兪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金正泰
副 會 長	申聖秀 洪錫肇
理 事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監 事	金義炯 金教台
事務局長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친사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兪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 圓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朴殷寬	(주)시몬드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炅	프라이머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맥 회장
南秀淨	(주)센애플 대표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金寧明	(제)예울 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주)에럴드 회장
金信韓	대성 부사장
金承謙	(주)서릉통상 부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李圭植	경신금융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金英姬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瓚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李宇鉉	OCI 사장
金性完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2014 아시아인게임 조직위원장
胡鍾一	호성공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서양화가

玄智皓	(주)화승 부회장
金南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金寧慈	(제)예울 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
丁恩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지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움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사장
李海珍	NHN(주) 이사회위원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도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전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 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載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 原	두산산업차량(주) 대표이사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수석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빅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부사장
許允秀	(주)ALTO·(주)ALTEK 부사장
兪承熹	코리아나 회장박물관 부관장
李宰旭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림 이사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濟宇	홍아해운 상무
楊仁集	진로제팬 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대법원법원행정처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 부회장
李甲辛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사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이사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상무
許允烘	GS건설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계련 상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徐東姪	회원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萬玉	회원
金東官	한화솔라윈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
崔正勳	대보건설(주) 전략기획실장
崔雄善	(주)인팩 대표
朴瑗鎭	(주)진주현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JTBC 부사장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命壽	지리산 문화원장

박물관사람들

